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PC(USA)는 한국전쟁 발발일과 일제강점기 해방일을 기억하며 한반도 기도와 묵상의 시기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분열의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치유, 화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과 빛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매주 12시 14분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창시 멈추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교회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매주 기도 안내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USA)의 한국을 위한 기도 기간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s://pcusa.org/worship-with-us/yearbook/june-25-2026.

다섯째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드리는 기도

오랜 세월 동안 PC(USA) 교회들은 한국 교회들과 의미 있는 동역의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와 치유와 화해를 향한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선교 협력을 넘어,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기 있게 서며,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비전을 보여 주는 표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26 개역개정).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홀로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국경과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한 몸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짊어진 아픔은 온 몸의 기도가 되고, 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선물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글로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두려움과 분열과 거리감을 넘어, 우리의 기도와 몸호와 관계 속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적 삶이 그리스도의 화해케 하시는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증언이 온전함을 갈망하는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주차 기도 제목

1.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긍휼의 마음과 헌신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2.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 동역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의 몸호와 결정이 삼름과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세우게 하소서.
3. 남북한 사이에 지속적인 평화의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4. 북한과 여러 분쟁지역에서 억압 받고 고통 당하는이들에게 보호와 힘과 차유를 허락하소서.
5. 교회가 이 깨어진 세상 속 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신실하게 증언하게 하소서.

LET'S ALL SET A PRAYER ALARM

THURSDAYS @12:14PM

WHY 12:14PM?

Let us come together in prayer, from near and far, every Thursday at 12:14 PM from June 25 to August 15. Hebrews 12:14 says, "Pursue peace with everyone, and the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May Jesus Christ, our Prince of Peace, bring reconciliation, healing, and renewal to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broken world.

(818) 790-6708 La Cañada Presbyterian CHURCH 626 Foothill Blvd, La Cañada CA